

여대생들의 돈에 대한 태도와 경험 : 한국, 일본 및

한국계, 일본계 미국 여대생 비교

Money Beliefs and Behaviors and Experiences of Female  
College Students; A Comparison of Korean, Japanese,  
Korean-and Japanese-American Students

김정훈 · D. Masuo, L. Malroux, R. Hanashiro

원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복지정보학 전공 · Univ. of Hawaii · Queen's College,  
City Univ. of N.Y. · Univ. of the Ryukyus

Kim, Jung Hoon · D. Masuo, L. Malroux, R. Hanashiro

Wonkwang University · Univ. of Hawaii · Queen's College,  
City Univ. of N.Y. · Univ. of the Ryukyus

---

Abstract

This paper compared the money beliefs and behaviors and the experiences of four different groups of female college students using furnham's (1984) money Beliefs and Behaviors (MBBS) scale. These four groups were Korean, Japanese, Korean-American, and Japanese American. Two hundreds of female college students were surveyed.

Results from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the MBBS indicate the four factors: Obsession, Power, Anxiety, and Budge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factors of the money beliefs and behaviors and the selected variables of the money experiences among compared four groups.

**Key words :** Money beliefs and behaviors, Asian female students, Asian-American female students

**I. 문제의 제기**

돈은 기능적으로 교환의 매개체이나, 사회·문화적인 의미를 갖으며, 사회·문화적인 그룹들에 따

라 돈의 의미는 다르게 인식된다. 이에 따라 돈과 관련된 사람들의 태도나 행동에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Falicov, 2001).

돈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대한 여러 연구들 중에는 서구 사회나 (Bailey et. al., 1994; Hanley & Wilhelm, 1992; Tang, 1992; 1993) 동양 사회 (허경옥 등, 1997; 홍은실·황덕순, 2001)를 독립적으로 연구한 연구들과 동서양의 태도와 행동을 비교한 연구들 (김정훈·정혜정, 1996; Masuo & Reddy,

---

Corresponding author : Kim, Jung Hoon  
Tel : 063) 850-6650, Fax : 063) 850-7301  
E-mail : osu@wonkwang.ac.kr

1997)이 있었다. 이들 연구에서 대학생은 가장 일반적인 연구대상이었다.

이들 연구들에서는 돈에 대한 태도에 대해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동서양의 비교나 영어권내에서의 국가간 비교가 이루어 졌는데, 그 결과, 국가에 따라,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돈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음이 보고되었다.

그런데, 특히 돈에 대한 태도를 비교한 연구들 중 미국인과 다른 나라 사람들을 비교한 연구들은 미국인 일반을 대상으로 하여, 미국 사회의 인종적 다양성에 따른 다양한 문화적 가치관의 영향력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사회·문화적 배경이 사람들의 경제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서로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른 한국, 일본, 한국계 미국인, 일본계 미국 여자 대학생들, 네 그룹의 돈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비교함으로써 이들의 배경이 돈에 대한 경험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인 미국 문화와 아시아 문화에서의 가치 체계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아시아인들은 부모에 대한 효도, 부모에서 자녀로의 의사소통 흐름을 갖는 부모자녀관계, 사회적 역할에 대한 규정된 시각과 기대, 중용의 미덕, 공동 사회에 대한 책임, 노인에 대한 공경, 가족 중심적 사고 (Chung, 1992; Ho, 1976) 등의 가치체계를 갖고 있다. 반면에 미국문화는 개인중심적 사고, 작업 중심, 평등적 구조 등이 전형적인 가치체계이다. 비록 미국에서 살고있는 아시아 가족들이 서구적 가족 가치의 영향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아시아인들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가치가 이들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 II. 관련 연구 고찰

지금껏 여러 연구자들이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해 돈에 대한 태도와 행동들을 연구해 왔다. 그 중 가장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이용된 도구는 Furnham's MBBS (1984)와 Yamauch와 Templer (1982)였다. Furnham's MBBS (Money Behaviors and Beliefs

Scale)은 60문항이나 되는 도구의 크기도 불구하고 돈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는 장점 때문에 일부 또는 전 문항을 이용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김정훈·정혜정, 1996; Bailey & Lown, 1993; Bailey et al., 1992; ; Hanley & Wilhelm, 1992; Masuo et. al., 2001, Wilhelm et al. 1993). Furnham의 도구는 영어권에서 사용된 초기 연구결과에서는 기본적으로 Obsession, Power, Retention, Security, Inadequacy, Effort/Ability 와 같은 6개의 요인 구조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Obsession과 Power, Retention 이외의 요인들은 조사 대상들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Yamuch와 Templer(1982)의 도구는 주로 심리적인 돈에 대한 태도에 초점을 맞춘 도구로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사용되었다 (허경옥 등, 1997; 홍은실·황덕순, 2001; Median et al. ,1996). 여기서는 5가지 요인들로 세분화되었는데, 돈을 권력이나 지위의 상징으로 보는 것, 시간-저장의 차원으로 보는 것, 돈에 대해 불신하는 태도를 지니는 것, 권력-지위의 상징을 기반으로 한 질적인 측면, 마지막으로 돈에 대해 불안, 걱정을 가지고 있는 태도가 그것들이다; Power-Prestige, Retention time, Distrust, Quality and Anxiety.

Lim과 Teo(1997)는 위에 언급된 3개 척도들을 조합하여 66개 문항의 돈에 대한 태도 척도를 만들어 이중 싱가포르 대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8개의 요인들을 얻었다; Obsession, Power, Budget, Achievement, Evaluation, Anxiety, Retention, Non-generous. Masuo와 Reddy(1997)의 척도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4점 척도), 이중 10문항이 3개 요인으로 구조화되었는데, 이들이 비교한 미국 대학생들과 일본 대학생들의 문항구조에는 차이가 있었으며, 미국 대학생과 일본 대학생들이 돈에 대해 다른 태도를 갖고 있었는데, 미국 대학생들은 돈을 보다 실제적인 의미로 인식하는 반면 일본 대학생들은 돈을 힘과 권위의 원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I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화, 사회적 배경이 돈에 대한 경험

〈표 1〉 돈에 대한 태도 요인분석 결과

강박성 (Obsession)	요인적재량			
	1	2	3	4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위해 필요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았던 물건을 사는 일이 있다.	.59			
돈이 있으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68			
돈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81			
돈이 생긴다면 합법적인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	.59			
<b>힘으로 인식 (Power)</b>				
사람들을 조정하거나 위협하기 위해 돈을 무기로 사용하는 일이 자주 있다.		.81		
때로 그 사람의 능력이나 성공에 관계없이 나보다 돈이 적으면 우월감을 느낀다.		.81		
돈을 경멸하고 돈 가진 사람들을 멸시하는 일이 자주 있다.		.61		
<b>불안감 (Anxiety)</b>				
돈이 많은 사람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일이 많다.			.55	
누가 내 경제 상태에 대해 질문을 하면 불안하고 방어적이 된다.			.74	
어떤 목적으로든 물건을 살 때, 내가 가장 고려하는 것은 값이다.			.80	
<b>예산행동 (Budget)</b>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항상 알고있다.				.81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현금이 언제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축을 한다.				.66
청구서들 (이동통신비, 하숙비, 구독료 등)을 받는 즉시 처리한다.				.76
신뢰도	.681	.720	.585	.611
R <sup>2</sup>	17.56	16.10	12.96	12.61
Total R <sup>2</sup>	59.22			

과 태도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 그리고 현재 미국에 살고있는 한국계 미국인과 일본계 미국인 중 여대생들을 조사하였다. 조사는 서구가치를 내포한 미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어떻게 한국과 일본 가정의 여학생들의 돈에 대한 가치에 영향을 주는지를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미국계 일본 대학생과 미국계 한국 대학생들은 100% 일본인과 100%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를 위해서 2000년 9월 한국, 일본, 미국 하와이와 뉴욕에서 총 200명의 여자 대학생들을 조사하였는데, 한국 여대생 69명, 일본 여대생 53명, 한국계 미국인 28명, 일본계 미국인 50명이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0.36으로서, 한국과 일본 여대생들의 연령 분포를 고려하여 미국에서의 표본은 대학의 기초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4세 이상의 학생들은 제외시켰다. 또한 한국계와 일본계 미국 여대생들은 문화·사회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여대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선별

하여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이들이 미국에 산 기간은 한국계 미국 여대생들은 14.43년, 일본계 미국 대학생들은 18.88년이였다.

본 연구는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우선 조사대상들의 (1) 돈과 관련된 경험으로는 정규적으로 용돈을 받은 기간, 스스로 통장을 관리한 기간, 부모님이나 친구, 형제들과 돈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정도,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한 경험의 유무, 자기 이름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유무, 월평균 사용액, 용돈 독립율이다.

다음으로 (2) '돈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Furnham(1984)의 60항목 MBBS Scale을 사용하였는데. 이들 태도 항목들은 7점 Likert Scale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는 .831이였다.

자료 분석은 SPSS를 이용하였으며, 돈에 대한 태도 항목을 구조화 하기 위하여 탐험적 요인 분석하였고, 한국, 일본, 한국계 미국 및 일본계 미국 여대생들의 돈에 대한 태도와 경험의 차이를 비교 하기위해 ANOVA (Duncan 사후분석)를 이용하여

$p < .10$  수준에서 유의검증 하였다.

돈에 대한 태도 문항들은 요인적재량 .45와 상대적 적재량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탐험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표 1>, 4개 요인을 얻었다: 강박성, 돈을 힘으로 인식하는 태도, 불안한 태도, 예산행동(Obsession, Power, Anxiety, Budget). 이들 하위 요인들은 돈에 대한 태도의 60%를 설명하고 있었으며, 하위요인들의 신뢰도는 각각 강박성 요인의 신뢰도는 .681, 돈을 힘으로 인식하는 태도는 .720, 불안한 태도는 .585, 예산행동은 .611였다.

## IV. 연구 결과

### 1. 일반적인 특성

<표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들의 연령은 19-20세이며, 부모와 함께 살고있는 비율이 4그룹 모두 높았다. 그런데 이들 네 그룹의 종교적 경향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일본여대생들의 경우 불교 및 동양 종교와 종교가 없는 경우가 많

고, 한국여대생과 한국계와 일본계 미국 여대생의 경우 기독교가 많았다.

### 2. 돈 관련 경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용돈을 받은 기간, 자신의 통장을 관리한 기간, 친구나 형제, 부모와의 경제 문제에 대한 대화 수준, 용돈액수, 용돈의 독립율, 일을 한 경험에서 4 그룹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신용카드의 소지 유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일본 여대생들과 일본계 미국 여대생들이 한국 여대생들이나 한국계 미국 여대생들보다 용돈을 오래 전부터 받기 시작하였으며, 자신의 통장을 관리한 기간이 더 길었다. 또 경제 문제를 이야기하는 수준은 일본 여대생들이 다른 집단들보다 자신과 사회의 경제문제들에 대해 친구나 형제와도, 부모와도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용돈은 일본 여대생들과 한국계 미국 여대생들이 다른 두 그룹에 비해 많았으며, 이들이 용돈 중 스스로 해결하는 정도를 나타낸 용돈의 독립율은

<표 2> 돈 관련 경험 비교

	한국 여대생	일본 여대생	한국계미국여대생	일본계미국여대생	F
용돈 받은 기간(년)	3.99 A	8.45 AB	4.50 A	6.08 B	10.04 *
통장 관리 기간(년)	4.50 A	6.28 B	4.59 A	8.74 AB	6.73 **
경제 대화 수준					
친구나 형제와	3.17 A	3.66 B	3.19 A	3.26 A	5.75 *
부모와	3.25 A	3.96 B	3.64 AB	3.52 A	9.32 *
용돈액(\$) <sup>a</sup>	163.24 A	295.91 B	272.59 B	159.57 A	13.03 *
용돈 독립율(%)	4.78 A	61.70 B	84.5 B	65.1 B	49.43 *
	N(%)	N(%)	N(%)	N(%)	$\chi^2$
신용카드 소지					
있다	22 (32.4)	19 (35.8)	15 (53.6)	22 (44.0)	n.s.
없다	46 (67.6)	34 (64.2)	13 (46.4)	28 (56.0)	
일을 하고 돈을 번 경험					
없다	12 (17.4)	25 (47.2)	1 (3.6)	6 (12.0)	50.76***
Part-time	45 (65.2)	28 (52.8)	17 (60.7)	31 (62.0)	
Full-time	6 (8.7)		2 (7.1)		
Part & Full time	6 (8.7)		48 (28.6)	13 (26.0)	

\* $p < .05$ , \*\* $p < .01$ , \*\*\* $p < .001$ , n.s. not significant

A, B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결과임

<sup>a</sup> \$1.00 U.S. =109.0 Japanese Yen, \$1.00 U.S. =1150 Korean Won

한국 여대생들이 다른 세 그룹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다. 그러나 일을 하여 돈을 벌어난 경험은 일본 여대생들이 가장 적었고 한국계 미국 여대생들이 가장 많았으며, 어느 그룹에서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난 경험이 있었다.

최근 대학생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신용카드의 소유 여부는 4 그룹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한국과 일본 여대생들의 경우는 64%-68%가, 미국 여대생들의 경우는 46%-56%가 자신의 이름으로 발급된 신용카드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 3. 돈에 대한 태도

이들 요인들의 한국, 일본, 한국계 미국, 일본계 미국 여대생들의 차이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분석결과, 돈에 대한 태도 4개 하위영역 (강박

성, 힘으로의 인식, 불안감, 예산행동)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돈에 대해 강박적인 태도를 갖는 경향은 한국 여대생, 일본 여대생, 일본계 미국 여대생들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한국 여대생들이 돈에 대해 가장 강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고, 일본계 미국 여대생들이 돈에 대한 강박적 태도 경향이 가장 낮았다. 그런데 한국 여대생들의 강박적인 태도 경향은 다른 그룹들에 비해 현저히 컸다.

돈을 힘으로 인식하는 태도는 한국 여대생들과 다른 세 그룹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한국 여대생들이 다른 세 그룹들에 비해 돈을 힘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가장 컸으며 그 차이도 상당히 큰 경향을 보였다.

돈을 관리하는 예산행동에 대해서는 한국 여대생들과 일본 여대생들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일본 여대생들이 한국 여대생들보다

<표 3> 돈에 대한 태도 비교

	한국 여대생	일본 여대생	한국계 미국 여대생	일본계 미국 여대생	F
강박성 (Obsession)	3.96 A	2.64 B	2.69 B	2.29 B	29.56 ***
잘 보이기위해 물건을 산다	3.88 A	2.44 B	2.57 B	2.16 B	15.03 ***
돈이 있으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	3.28 A	2.04 B	2.29 B	1.98 B	8.32 ***
돈을 무엇보다 중요	4.16 A	3.49 B	2.21 C	1.98 C	22.93 ***
돈이 생긴다면 합법적인 일이라면 무엇이든	4.51 A	2.58 B	3.68 B	3.02 BC	16.38 ***
힘으로 인식 (Power)	2.54 A	1.49 B	1.79 B	1.64 B	14.24 ***
돈을 무기로	2.26 A	1.21 B	1.56 B	1.24 B	12.53 ***
나보다 돈이 적으면 우울감을	2.72 A	1.64 B	1.86 B	1.66 B	8.05 ***
돈 가진 사람들을 멀리	2.62 A	1.62 B	1.96 B	2.02 B	6.90 ***
불안감 (Anxiety)	3.66 A	3.35 A	3.40 A	3.65 A	n.s.
돈 많은 사람에게 열등감	3.34 A	2.64 A	2.68 A	3.34 A	n.s.
경제 상태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 불안	3.02 A	3.26 A	2.89 A	2.96 A	n.s.
가장 고려하는 것은 값	4.46 A	4.13 A	4.64 A	5.14 B	4.14 ***
예산행동 (Budget)	4.73 A	5.50 B	5.17 AB	4.98 AB	4.09 ***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안다	4.86 A	4.89 A	4.64 A	4.52 A	n.s.
저축을 한다	4.51 A	6.38 B	5.14 C	5.14 C	16.66 ***
청구서들을 즉시 처리	4.86 A	5.25 A	5.71 A	5.28 A	n.s.

\*p<.05, \*\*p<.01, \*\*\*p<.001, n.s. not significant, n.s. not significant

돈에 대한 태도는 매우 그렇다(7)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로 측정

예산관리 행동을 더 잘 하고 있었다.

돈 문제에 대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경향은 네 여학생 그룹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하위 문항 중 '물건을 살 때 가장 고려하는 것이 값'이라는 문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어, 일본계 미국 여대생들이 현저히 높은 값을 보였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문화, 사회적 배경이 다른 4그룹의 여대생들을 비교함으로써 문화, 사회적 배경이 돈에 대한 경험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및 일본 여대생, 한국계 및 일본계 미국 여대생을 조사하였으며, 200명의 자료가 분석, 비교되었다.

연구결과, 한국 여대생과 한국계 미국 여대생들은 일본 및 일본계 미국 여대생들에 비해 정기적으로 용돈을 받거나 자신이 통장을 관리한 기간이 적었으며, 일본 여대생들은 친구, 형제, 부모와 경제문제에 대해 보다 많은 대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 여대생들과 한국계 미국 여대생들이 더 많은 용돈을 쓰고 있었다. 그런데 용돈 중 자신이 해결하는 비율은 한국 여대생들이 (4.78%) 다른 그룹들에 (61.7%에서 84.5%) 비해 현저히 낮았다. 신용카드를 가진 비율은 그룹간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일을 해서 돈을 벌어난 경험은 네 여대생 그룹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돈에 대한 태도는 4개 하위차원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한국 여학생들이 다른 그룹들에 비해 돈에 대해 강박적 태도가 높으며, 돈을 힘으로 인식하고 사용하는 태도가 높았다. 또한 일본 여학생들은 다른 그룹들에 비해 자신의 경제상태에 대해 불안감이 낮았고, 저축을 하거나 청구서를 제때에 지불하는 예산행동의 수준이 높았다. 그러나 한국 여대생들은 이러한 예산행동에서 다른 그룹들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한국 여대생들이 일한 경험에 비해 용돈 독립율이 매우 낮은 것은 번 돈을 생활비가 아니라 소비욕구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예산행동과 경제적 대화 수준에서 낮은 점수를 나타냈는데, 이것은 한국적 가정 문화가 자녀들에게 용돈 교육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 결과 학생들은 돈을 실제적인 도구로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도구로 인식하고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결과는 한국 가정과 사회에서 젊은 세대에게 금전 교육에 보다 노력해야 함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용돈을 받은 기간과 용돈액을 제외하고는 미국에 사는 한국계와 일본계 여학생들 사이에 차이가 없어서 미국적 문화가 돈에 대한 경험과 태도에 보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사회·문화적으로 서로 다른 배경의 네 그룹의 여대생을 비교함으로써 사회·문화적 배경이 돈에 대한 태도와 경험에 차이를 가져옴을 밝혔다. 특히 연구 결과는 다른 그룹들에 비해 한국 여대생들의 경험과 태도에서 차이가 있어 한국에서의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등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조사대상의 수가 비교적 작아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을 갖으며, 따라서 앞으로 한국 대학생들에 대한 돈에 대한 태도나 경험 등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기대된다.

주제어: 돈에 대한 태도와 행동, 아시아 여대생, 아시아계 미국 여대생

## 참고문헌

- 김정훈·정혜정 (1996). '돈에 대한 태도'에 대한 시험적 연구 : MBBS 적용 및 비교 문화적 관점. 원대논문집, 32-2, 521-535.
- 허경옥 등 (1997). 돈에 대한 태도 유형별 가계의 저축행동. 소비자학연구, 8(2), 43-60.
- 홍은실·황덕순(2001). 여대생 소비자의 화폐에 대한 태도유형별 가치특성에 관한 연구. 소비자문화연구, 4(2), 21-38.
- Bailey, W.C. & Lown, J. (1993). A Cross-cultural examination of the psychology of attitudes towards money.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7,

- 391-402.
- Bailey, W.C., Johnson, P., Lawson, R.J., Williams, P.K. & Lown, J. (1992). An Exploratory study of the money beliefs and behaviors scale Using data from three nations. *Consumer Interests Annual*, 40, 178-185.
- Falicov, C.J. (2001). The Cultural meanings of mone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5(2), 313-328.
- Furnham, A. (1984). Many sides of the coin: The Psychology of money usag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 95-103.
- Hanley, A. & Wilhelm, M.S. (1992). Compulsive buying: An Exploration into self-esteem and money attitudes.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3, 5-18.
- Lim, V.K.G. & Tang, T.S.H. (1997). Sex, money and financial hardship: An empirical study of attitudes towards money among undergraduates in Singapore.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8, 369-386.
- Masuo, D.M., Kim, J.H., Malroux, L. & Hanashiro, R. (2001). Money Beliefs and Behaviors: A Comparison of Korean, Japanese and Asian American Female College Students. *4th Proceedings of Asian Consumer and Family Economics Association Conference*. July 4-6, 2001, Shijiazhua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87-195.
- Masuo, D.M. & Reddy, M. (1997). Comparison of students' money attitudes: A Cross-cultural sampling of selected U.S. and Japan Universities. *European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3, 185-191.
- Median, J.F., Saegert, J., & Gresham, A. (1996). Comparison of Mexican-American and Anglo-American attitudes toward money.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30, 124-145.
- Tang, T.L. (1993). The meaning of money: Extension and exploration of the money ethic scale in a sample of University students in Taiwan.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4, 93-99.
- Yamauchi, K.T. & Templer, D.I. (1982). The development of a money attitud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6, 522-528.

(2002. 2. 28 접수)